

사업 보고서

2002년 한-아세안문화계인사교류사업

한국 영화인 아세안 방문

2002년 6월19-26일 / 태국, 인도네시아 · 필리핀, 싱가포르

- I. 사업개요
- II. 조별활동보고
- III. 평가 및 제안

* 별첨자료:

- 1. 일정표
- 2. 조별세부보고서
- 3. 면담인사

I.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가. 1998년에 체결된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정에 기초. 1999년 이래로 실시되어온 “한-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영화인들의 한국방문 (2001.7.30-8.6)에 이은 한국영화인들의 아세안국가 방문사업이 실시되게 됨.
- 나. 한국의 영화관련 전문인들의 아세안 방문을 통해 각 국의 영화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최기관

- 주최 :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교통상부
-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방문기간 : 2002년 6월 19일-26일

4. 방문국 : A조 태국, 인도네시아 / B조 필리핀, 싱가포르

5. 참가자 : 14명

A조 (7명)

황기성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단장)
주진숙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정태성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황동미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최광희 영화주간지(Film 2.0) 기자
정병후 외교통상부 동남아과 서기관
박성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차장

B조 (7명)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단장)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
남인영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중호 동국대학교 영상제작학과 교수
박병우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사무관
최중호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서기관
이선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 주요활동 :

- 영화인 토론회 (영화현황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
- 영화관련 기관/단체 방문
- 영화관람, 리셉션 등

7. 세부일정 : * 별첨 1 참조

II. 조별활동보고

<A조-태국>

1. 활동개요

- 영화인 토론회 : 영화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단체 방문 : Film Archive, Cinelab(후반작업 업체)
- 영화관람 : <낭낙>, 학생단편영화 등
- 기타 : 촬영지 방문, 리셉션 등

2. 주요내용

1) 한국-태국 영화인 토론

가. 일시/장소 : 2002년 6월 20일 09:00-12:00 /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나. 참석자 : Mr. Kom Akadeu(The Federation of National Film Association of Thailand), Mr. Vissute Poolvorakaks(Thai Entertainment), Mr. Uncle Adirek Watleela(Film Bangkok) 등 태국 영화 관계자 20여명

다. 내용 :

- 태국 영화위원회 관계자는 영화제작에 대한 심한 규제와 검열 그리고 관련 정책 부재가 태국의 현 문제점이지만, 서서히 민간 위주의 자율 제작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
- 외국제작자의 태국 현지 영화제작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장비 지원 그리고 촬영 후 세금 환급 등 적극적인 지원 예정.
- 한국의 영화제작 관련 투자, 융자 및 지원방안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영화 관련 교육 지원사업으로 BK 프로젝트 등이 소개됨.
- 스크린 쿼터제 유지와 검열제 완전 철폐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함.
- 그밖에 양국의 공동 제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태국 영화 교류를 위해 "Film Scholar Exchange Programme" 등이 제안됨.

2) 태국 Film Archive 방문

가. 일시 : 2002년 6월 20일 15:00-17:00

나. 내용 :

- 18년의 역사를 가진 동 영상자료 보관소는 영상자료의 복원과 보관, 그리고 대중 상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0편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음 (이중 3,000편은 다큐멘터리이고 1,000편이 극영화임)
- 현재는 주로 영화 프린트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중들에게 영화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 아직은 정부부처 내의 작은 부서에 불과하고 예산도 빈약하지만 정부가 현재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라 향후 많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A조-인도네시아>

1. 활동개요

- 영화인 토론회 : 영화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방문 : Jakarta Institute of Arts, National Film Advisory Board
- 영화관람 : <The Wedding>외 학생작품
- 기타 : 문화부장관 예방, 리셉션 등

2. 주요내용

1) 인도네시아 문화부장관 (Mr. I Gede Ardika) 예방

가. 일시 : 2002년 6월 24일 08:00-0900

나. 내용 :

- 인도네시아는 과거 연간 10편에서 15편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1-2편, 많아야 5편 정도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상황임.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영화의 몰락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작비의 상승이고 둘째는 인도네시아 관객이 자국영화를 외면한 것임.
- 그러나 최근 젊은 감독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젊은 관객들이 자국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임.
-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많은 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검열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 세금 감면이나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중이며 영화법도 곧 재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임.
- 이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양국간 교류, 그리고 공동 작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2) 한-인도네시아 영화인 토론회

가. 일시/장소 : 2002년 6월 24일 11:00-16:00 / National Film Advisory Board

나. 참석자 : Mr. Slamet Rahardjo Djarot(President, National Film Advisory Board), Ms. Mina Lesmana(Film Director, Producer), Mr. Gotot Prakosa(Jakarta Institute of the Arts) 등 인도네시아 영화 관계자 20여명

다. 내용 :

-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What's up with Love>는 1개 섬만 개봉한 상태에

- 서도 230만 정도의 관객이 몰려 성공하였음. (제작비는 4billion RP 즉, 3백만 달러가 들었고 26개 프린트를 만들어서 44개 스크린에서 개봉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영화시장 관련 자바섬에만 약 200개 정도의 스크린이 있으며 다른 섬에는 약 150개 정도가 있음. 입장권은 US\$3.5 정도인데 문제는 세금 부과에 있음(입장권의 1/3은 극장이 가져가고, 1/3은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1/3이 제작자의 몫임) 따라서, 정부의 몫을 줄이지 않는 한 영화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음.
 - 양국의 전문가들은 영화분야 교류 강화를 위해 영화제나 교류전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3) Jakarta Institute of the Arts(영화학교) 방문

가. 일시 : 2002년 6월 24일 18:00-19:00

나. 내용 :

- 동 학교 졸업작품 감상 :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 인도네시아 유일의 영화학교인데 과거에는 국립이었으나 지금은 정부 보조가 전체 예산의 15% 이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되고 있음.
- 영화와 텔레비전학과에는 500여명이 재학중이고, 예술학교 전체는 약 3,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코스는 3년 반 코스와, 5년 과정으로 모두 학사학위가 수여되고 있음.
- 동 학교의 교육 목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장학금 제도는 Kodak에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도임.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대개 영화계나 방송쪽임.

<B조-필리핀>

1. 주요활동

- 영화인 토론회 : 영화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방문 : Mowelfund, ABS-CBN Studio 방문
- 영화관람 : <Manila by Night>, 학생단편영화 등
- 기타 : 리셉션

2. 주요내용

1) Movie Workers Welfare Foundation 방문

가. 일시 : 2002년 6월 19일 15:00-17:00

나. 참석자 : Mr. Nick Deocampo(Director, MowelFund), Mr. Espiridion Laxa(Chairman, Film Academy of the Philippines), Mr. Eddie Romero(Chairperson, NCCA Cinema Programme)등 필리핀 영화관계자 10여명

다. 내용:

- MowelFund는 아시안 인디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영화관련 민간기관으로, 필리핀 영화종사자들의 복지증진, 실험적인 영화제작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MFI(모웰펀드 필름 인스티튜트)는 필리핀 독립영화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MowelFund의 사무국장인 Deocampo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가능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관련, 영상자료의 교환과 한국영화제 개최가 제안되었으며, 국내 영화제(여성영화제)에 필리핀 작품출품과 영화인 초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필리핀 영화기술자 2-3인을 서울종합촬영소에 초청. 훈련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제안함.

2) 한국-필리핀 영화인 토론

가. 일시/장소 : 2002년 6월 21일 14:00-16:00 / 필리핀 문화센터

나. 참석자 : Dr. Bienvenido Lumbera(Chairman, Film Development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Mr. Lilian C. Barco(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Ms. Victoria D. Belarmino(Film Archivist)

다. 내용 :

- 마르코스 시절에 만들어진 이스마엘 버날의 영화 <Manila by Night>을 관람.
- 현 필리핀 영화산업은 수입 면에서 1999년 833,800,000페소에서 2001년 706,500,000페소로 감소되었고, 제작 편 수 면에서 1997년 211편에서 2001년 107로 감소되는 등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
- 영화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부재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더불어 1. 방송매체와의 경쟁, 2. 해적판의 남발, 3. 불합리한 세금정책, 4. 검열제도, 5. 외국영화수입의 무규제가 필리핀 영화산업의 주요 위기 요인임.
- Dr. Lumbera는 2001년 동사업의 아세안영화인한국방문사업에 참가한 경험을 언급.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상에 부러움을 표하며, 다양한 측면의 지원과 협력을 희망해옴.
- 이에, 서울종합촬영소의 규모와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위한 종합촬영소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 필리핀은 연간 100편의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영상자료원이 없기 때문에 제작자가 각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련법규 제정 및 자료원 설치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

<B조-싱가포르>

1. 주요활동

- 영화인 토론회 : 영화현황 및 교류방안 논의
- 기관방문 : Singapore Film Commission, NgeeAnn Polytechnic, MediaCorp, 국립자료원
- 영화관람 : <INotStupid>, 학생단편영화 등
- 기타 : 리셉션

2. 주요내용

1) 영화(INotStupid)감상 및 관련인 토론

가. 일시/장소 : 2002년 6월 23일 10:00-12:00 / Swisshotel

나. 참석자 : Mr Jack Neo(Director, Writer), Mr Daniel Yun(Producer), Mr. Franklin Wong(CEO, MediaCorp Studio)

다. 내용:

- 2002년 싱가포르 최고 흥행작품인 <INotStupid>는 자국영화사상 2번째 흥행기록인 3.8싱가폴 달러의 흥행수익을 기록한 영화임.
-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자국 영화시장의 한계(제한된 인구 규모)로 인해 대부분 저예산 영화가 싱가포르의 주류를 이룸.
- 한국에서의 배급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고 추천하기로 함.

2) NgeeAnn Polytechnic(영화학교) 방문

가. 일시 : 2002년 6월 24일 10:00-12:00

나. 참석자 : Dr. Victor Valbuena(Director), Ms. Mitchell Gnutzman(Assistant-Director), Mr Vijay Chandran(Lecturer)

다. 내용:

- 싱가포르 최초의 영화 전문교육 기관으로 3년 기간의 전문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정부의 투자를 받아 뛰어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임 교수가 30명에 이를 정도로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영어권이라는 장점을 살려 전세계에서 교수를 초빙. 유연하게 고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영상관련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최첨단 장비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임.
- 계획적인 투자와 기반시설들은 싱가포르 영화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함.

- Dr. Valbuena 학과장은 한국 대학과 교류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음. 관련, 국내대학과 학술 및 학생/교사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함.

2) Singapore Film Commission 방문 및 토론

가. 일시 : 2002년 6월 25일 11:00-12:30

나. 참석자: Dr. Ismail Sudderuddin(Director, SFC), Ms. Ang Hwee Sim (Assistant-Director, SFC), Ms. Jun Mahtar(Assistant, SFC), Mr Vijay Chandran(Lecturer, NgeeAnn Polytechnic)

다. 내용:

- 싱가포르 영화산업은 규모나 그 체계가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배경으로 민-관 합동의 다각적인 준비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SFC는 제작지원, 독립영화 육성 방안, 촬영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의 국산영화 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연간 5-6편의 국산영화를 제작하면서도 900편의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싱가포르로서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한국 영화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SFC는 한국과의 합작영화 활성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한국간에 원활한 공동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고, 한국 대표단은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힘.
- 한국영화주간(회고전)을 마련. 정기적인 영화교류기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독립적인 영상자료원이 부재한 싱가포르측에서도 설립관련 지원을 요청하였고 한국영상자료원측은 적극지원 의사를 밝힘.

III. 평가 및 제안

1. 성과

- 가. 한국과 아세안국가 영화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
- 나. 이들 국가의 영화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 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영화 합작 등 협력 토대 마련
- 라. 이들 지역에 한국영화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 전략 필요성 인식

2. 평가

- 가. 영화분야 아세안국가와의 최초 교류사업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영화인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와 성과가 있음.

- 나. 각 방문국은 한국의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협력/지원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 이에, 이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인적교류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함.
- 다. 한국측 대표단과 관련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특히 이 사업의 직접적인 후속사업으로 지역의 공동협력 필요성을 인식. “아시아영화인정책포럼”개최가 제안됨.
- 라.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영화 산업과 정책부분에 치중. 영화의 문화적, 교육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였음. 또한, 공식 토론을 통한 영화인들과의 만남에 더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함.
- 마. 대표단 구성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 협력방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결과적으로 각 분야별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었으며 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3. 협의 및 제안사업

가. 네트워크 구축 :

- 아세안 국가 영화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들 국가에 한국 영화의 보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기관 및 정부의 지원 하에 “아시아 영화인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개최 (영진위, 부산영화제 협의)
- 영상위원회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인적교류 :

- 영화교육 관계자 교환방문
- 영화학교 교류 : 정보, 교수·학생 교환프로그램
- 아세안영화기술자 초청훈련프로그램 지원 (서울종합촬영소 제안(필리핀))

다. 영화교류

- 한-아세안 영화 교류전 추진 (영상자료원, 영진위 협의(필리핀, 싱가포르))
- 국내 영화제 초청 (서울여성영화제 협의(필리핀, 싱가포르))
- 영화합작

라. 정보교환 및 지원

- 아세안국가 대상 한국 영화 정보자료의 정기적 배포
- 영상자료원 설립 지원 (영상자료원 협의(필리핀, 싱가포르))
- 국내 중고장비의 아세안 지원

별첨 1. 일정표

<A조: 태국, 인도네시아>

일자	시간	개요	내용
6월 19일	14:00	방콕 도착	현지담당자와 방문일정 협의
	17:30	영화 관람	<낭낙> SFX 시네마
	20:00	저녁식사	
6월 20일	09:00	토론	태국 영화인들과 영화현황 및 교류방안 토론
	15:00	Film Archive 방문	영상자료보관소 방문
	19:00	만찬	주 태국 총영사 초청 만찬
6월 21일	09:00	관광	Grand Palace 방문
	12:00	Cinelab 방문	후반작업 업체인 Cinelab 방문
	13:30	점심식사	
	15:00	촬영장 방문	방콕 시내 야외 촬영장 방문
	19:30	저녁식사	
6월 22일	08:30	방콕 출발	
	11:50	자카르타 도착	
	13:30	프로그램 협의	현지담당자와 방문일정 조정
	19:00	저녁식사	
6월 23일	08:30	관광	Indonesia Miniature Park
6월 24일	08:00	문화부 방문	
	10:00	외무부 방문	
	11:00	기관 방문 및 토론	National Film Advisory Board
	17:00	학교 방문 및 토론	Jakarta Institute of Arts
6월 25일	09:00	아세안사무국 방문	
	10:30	극장시설 시찰	자카르타 시내 멀티플렉스 방문
	21:25	자카르타 출발	
6월 26일	06:00	서울 도착	

별첨 1. 일정표

<B조: 필리핀, 싱가포르>

일자	시간	개요	내용
6월 19일	11:20	마닐라 도착	
	15:00	기관방문	영화인조합, 교육 기관인 Mowelfund 방문
	19:00	만찬	아세아-필리핀 사무국 주재
6월 20일	09:00	관광	Casa Manila, 대통령궁 등
	11:30	오찬	필리핀외무부 차관 주재
	14:00	영화감상 및 토론	영화 <Manila by Night> 감상 및 토론
6월 21일	09:00	관광	전쟁유적지 Corregidor 관광
	19:00	만찬	주 필리핀 한국대사 주재
6월 22일	09:00	스튜디오방문	ABS-CBN Studio 방문
	21:20	싱가포르 도착	
6월 23일	09:00	영화감상 및 토론	<INotStupid> 감상 및 토론
	14:30	관광	Chinatown 등
	19:30	만찬	Singapore Film Commisison 주재
6월 24일	10:00	학교방문 및 영화감상	NgeeAnn Polytechnic방문 및 학생작품감상
	14:00	방송사방문 및 토론	MediaCorp Studio
	19:30	만찬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 주재
6월 25일	11:30	토론	문화부방문 및 SFC관계자 토론
	13:00	점심식사	
	22:35	싱가포르 출발	
6월 26일	06:00	서울 도착	

별첨 2. 조별세부보고서

프로그램별 논의내용 정리 : A조

· 정리 : 황동미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태국>

■ 한국-태국 영화인 토론

- 일시/장소 : 2002년 6월 20일 오전 09:00-12:00 / 그랜드 하얏트 호텔
- 참가자 : Mr. Kom Akadeu(The Federation of National Film Association of Thailand), Mr. Vissute Poolvorlaks(Thail Entertainment), Mr. Uncle Adirek Watleela(Film Bangkok), Mr. Sanga Chatchairungreung(), Mr. Chaiwat Thaveewongsangtong(Five Strar Production), Mr. Tian Pornvanich(), Mr. Wittaya Supaporn-opat(Luk Tung), ML. Sidhichai Jayant(Thailand Film Office), Ms. Nithinand Yorsaengrat(Bangko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r. Kriengsak Silakong(), Ms. Chalida Uabumrungjit(Thai Film Foundation), Mr. Dome Sukvong(Film Archive), Assoc. Prof. Dr. Sman Ngansnit(Communication Arts School Siam University), Asst. Prof. Ruksarn Viwatsinudom (Chulalongkorn University), Ms. Pakpimol Seni(Rajamangala Institute of Technology), Mr. Wirachai Tangsakoon(Sukhothai Thammatriat Open University)

· 토론내용

사회: 한국과 타이는 매우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Thailand Film Office, Film Archive, 업계 그리고 교수들이 모였다. 다양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설명: Thailand Film Office에 부임한지 1년 반이 되었다. 이제 여러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민간영화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게 되어서 큰일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장편극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을 모두 책임진다. 태국의 문제라면 첫째로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는 점이다. 사업 자체가 가능하지 못할 정도다. 둘째는 검열이다. 경찰국 산하에 존재하는 검열기구에 대해서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만 하다. 그저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처럼 등급이나 자기심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우리는 영화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만 정부가 하려고 한다. 민간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영화계와 가까워지길 원한다. 정확히 말하면 태국 정부는 영화관련 정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질문: 한국에서 만약 영화제작을 위해 태국을 찾는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태국답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다. 각종 인허가, 그리고 정부의 헬기지원까지

도. 외판 지방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절할 것이다. 촬영후에는 세금 환급(Tax Clearance) 제도가 있고 관세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미리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거절한 적은 없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시나리오,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미리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에게 (Thailand Film Office) 연락을 해 주면 된다.

태국질문: 한국의 정부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한국답변: 투자, 융자, 지원 등으로 나뉘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 특히 지원은 예술영화나 독립 영화등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 힘든 영화에 대해서 제작비나 시나리오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그리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연구 영역에서 각종 지원책을 편다.

태국질문: 독립영화도 지원하나?

한국답변: 지원한다. 대안적인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영화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한다.

태국질문: 한국정부는 영화관련 교육도 지원하는가?

한국답변: BK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여러 대학을 선택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대 영화과도 이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이 되어서 매년 정부로부터 10억의 지원을 받는다. 대신 중앙대로 똑같이 1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중앙대는 한 예이다.

태국질문: 한국의 정부기구에서 연구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답변: 영진위에서 하고 있다. 일단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분기별로 영문 소식지를 발행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Box Office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출판물 하고, 출판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주기도 한다. 또 우리 자체 연구원이 있어서 영화계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중국영화산업백서”, “일본영화산업백서”, “디지털영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다. 이 연구보고서를 영화계에서 보면, 새로운 흐름이나 사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태국질문: 한국 정부의 주요한 태도는?

한국답변: 한국영화정책의 주요 흐름은 첫째 스크린쿼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을 완전 철폐해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영화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영화인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위원회를 지자체가 신설해서 감독에게 최적의 촬영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태국제안: 영화교류를 위해 Film Scholar Exchange Program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학생 차원에서 수행해도 좋지만, 영화관광그룹 등을 조직하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한 방안이다. 학생 교류는 미국의 OHIO의 대학과 학생 교류를 해 본 적이 있다.

한국답변: 좋은 생각이다. 한국의 대학에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과 학교측이 각기 반씩 경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 외에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본 교수가 중앙대학교에 와서 한 학기동안 강의한 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공동 제작 등도 가능해질 것이다.

태국설명: 태국 영화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태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태국 영화계는 작년부터 양적 성장세를 보여다. <수리요타이>가 지난 해 700만의 관객의 동원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38% 까지 끌어올렸지만 올 해는 그런 대작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20%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질문: 최근 한국영화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답변: 투자조합 등의 진출로 많은 자본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한국영화 자체의 질이 향상되어 젊은 관객이 한국영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배급환경이 개선되어서 수익구조가 투명해졌다는 점이 있다. 영화인들의 창의력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투자와 배급 시스템에 있어서 한국영화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한국영화가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봉되는 한국 영화중 약 20% 안팎만이 흑자를 보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고 있다.

태국설명: 태국은 30년대 제정된 영화법이 아직까지 유지되면서 검열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검열기준이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검열 회의에 경찰만 참여했었는데 최근에는 교수 등도 참여한다. 검열 규칙을 예를 들면, 누드를 보일 때 젓꼭지가 보이면 안되거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질 수 없는 것 등등이다.

한국질문: 한국은 외국과의 공동제작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다. 최소 자본 비율등을 규정해 놓았다. 태국에도 그런 규정이나 법이 있는가?

태국답변: 태국에는 그런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 한국과는 두 번의 공동제작 경험이 있다. 60년대 <아리랑>이라는 영화와 80년대 <악어> 라는 작품이다. 태국에는 약 7-10개 정도의 영화제작사가 있는데 그 중 1-2개 영화사는 한국과의 공동제작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태국설명: 태국은 극장이 전국적으로 약 800개 정도 있고 개봉할 때 프린트를 약 100 copies 정도 뜬다. 히트작은 200개 이상 만들기도 한다. 주당 5-6편의 영화가 개봉되고 연간 260여편 이상이 개봉된다. 입장료는 20BHT로 약 US\$3 정도에 해당한다.

태국질문: 한국은 어떤 영화가 유행하고 젊은 관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국 영화를 보도록 하나?

한국답변: 할리우드 영화와 다른 한국적 스타일의 영화가 있고 그런 것이 유행한다. 그리고 젊은 관객이 한국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그냥 영화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태국질문: 관객 조사는 하나?

한국답변: 서울관객 1000명에 한해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에 알린다.

태국질문: 학술연구는 얼마나 하나?

한국답변: 영진위에서 매년 10여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그 외에도 학술지가 3개가 매년 발행된다. 학술지마다 최소 20여편 이상의 논문이 실리고, 각 대학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

한국정리: 태국에 관심이 많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태국정리: 좋은 기회였다. 지속적으로 교류하자.

■ Film Archive 방문

• 일시 : 2002년 6월 20일 15:00-17:00

• **인사말과 설명:** 환영한다. 태국 영화보관소는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National Library에 자리 잡은 이곳에는 시사실과 작은 사무실이 있고, 보관소는 방콕에서 약 25km 쯤 떨어진 곳에 있다. 주요 업무는 복원과 보관, 그리고 대중적 상영이다. 연혁은 18년이 되었고, 현재 약 4,000편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 이중 3,000편은 다큐멘터리이고, 1,000편이 극영화다. 다큐멘터리는 CF나 홈비디오, 홍보영화 등을 포함한다. 현재는 영화 프린트 보관이 주요 업무지만 앞으로는 대중들에게 영화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다. 아직은 정부부처 내의 작은 부서에 불과하고 따라서 예산도 매우 적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영화 상영

1. 1957년 뉴스릴 왕실-불교-정치
2. 뤼미에르 형제의 기사들이 촬영한 유럽을 방문중인 태국 국왕 내외
3. 1922년
4. 한국전쟁의 비참함과 반공 홍보 영화
5. 각종 광고
6. 홈비디오
7. 극영화 <Double Act> 1927년작
8. 태국을 배경으로 한 외국영화(할리우드 작품)
9. 학생작품 2001년 최우수 단편 영화상 수상작품
10. Video Artist의 작품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Mr. I Gede Ardika) 방문

• 일시 : 2002년 6월 24일 08:00-09:00

• 내용 :

장관발언: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과거에는 연간 10편에서 15편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1-2편, 많아야 5편 정도의 영화가 만들어질 뿐이다. 3년 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은 꽤 창조적이고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영화의 몰락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작비의 상승이고

둘째는 인도네시아 관객이 자국영화를 외면한 것이다. 관객이 영화를 떠나서 텔레비전과 VCD 등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젊은 감독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또 최근 젊은 관객들이 자국영화로 되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우리집 두 딸들이 <What's up with Love?>라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보려고 이틀이나 걸려서 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나이든 관객들보다 젊은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자기의 눈이 있다. 따라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변화를 언급하고 싶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많은 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최근의 변화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검열기구가 있다. 그래서 반발하는 영화인들도 있다. 왜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영화산업은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 앞으로는 세금 감면이나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중이다. 그리고 영화법도 곧 재검토해서 정비할 것이다.

미술은 혼자서 작업할 수 있지만 영화는 많은 영화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다른 장르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앞선 영화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첫걸음은 비록 작지만, 첫 걸음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방문이 양국간의 교류, 그리고 공동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인 토론

· 일시/장소 : 2002년 6월 24일 11:00-16:00 / National Film Advisory Board

· 영화상영

1. <Whispering Sand> 시장에서는 실패한 영화다. 1965년에 일어났던 공산당학살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감독은 JIA 출신이다.
2. 1973년 영화 <The Wedding>

· 인도네시아 영화역사

192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영화가 시작되었다. 중국,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 영화가 도입된 이후 전통 공연이 점차 줄어들었다. 당시에는 중국영화 번역물이 유행하면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대변하지 못했다. 1930년대에는 체홉의 영향으로 소설을 각색한 영화가 유행했고, 1929년 최초의 발성 영화가 제작되었다. 당시에도 검열 문제는 심각해서 심지어 제목에서 <Go to the Mekah>라는 말조차도 쓸 수가 없어서 <Go to the Arab>으로 바꾼 일도 있었다. 이 문제가 최초의 검열 관련 파동이었다. 네덜란드인이 영화 제작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들은 중국인보다 더 친절하게 영화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주었다. 1940년대 일본 점령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Usmar Ismail로 남들이 다 중국영화, 미국영화를 복사할 때, 홀로 인도네시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인도네시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선구자적 생각을 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으며 그래서 오늘날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워진다. 당시 허영이라는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Usmar Ismail을 가르쳤다.

1960년대에 영화법이 기초되었고, 검열기구가 형성되었다. 당시엔 인도네시아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해 150여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었고, 당시 영화는 낙관적이고 웃

음과 따듯함이 가득했었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 말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인도네시아 영화가 급격하게 몰락했다.

그러나 최근 두 편의 영화가 흥행하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은 <What up with Love> 라는 청소년 멜로물로 <해리포터>와 <스파이더맨>을 누른 영화다. 역사상 처음이다. 현재 자바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에 흥행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은 독립영화로 독학으로 작업한 감독이다. DV로 작업을 했는데 제목은 <자이랑공>이다. 이 영화는 귀신에 관한 영화다.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다.

· 토론내용

기구설명: 이 건물은 총 8층으로 6층에는 아직도 검열위원회가 있다. 현재 국가영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980년대에 배우, 감독,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 건물은 20여년 전에 수입업자들에게 걸었던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었다. 땅은 여전히 정부 소유지만, 건물은 영화인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영화정책자문위원회는 관과 민간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기구다. 이전에는 Film Council이라는 명칭의 기구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조직이 변화했다. 정부가 검은 색이고 영화계가 흰 색이라면 이 기구는 회색으로 정부와 영화계의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심의와 관련된 논쟁은 자카르타처럼 변화한 동네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외진 지역에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기구의 활동 예산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 의심하고 있다. 이 기구는 4년이 되었다.

인니질문: 한국영화가 왜 인도네시아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되었는가?

한국답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고 한국영화가 해외진출을 시도한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이해하고 교류하기 바란다.

인니질문: 공동제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답변: 우선 서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니질문: 한국영화 성공원인

한국답변: 젊고 능력있는 인재의 유입. 자본의 성격 변화와 큰 유입. 그리고 배급 시스템의 정비 등이 한국영화의 현재 성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을 했다.

인니질문: 가장 성공한 영화 제목과 장르

한국답변: 작년에는 <친구>로 800만명 이상의 관객이 들었다. 올 해 상반기는 <집으로>로 400만명 이상이 들었다. 대개 한국에서는 액션, 멜로, 코미디가 강세다.

인니질문: 한국영화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새롭게 당면한 문제는?

한국답변: 스크린쿼터의 유지다. 미국정부가 자꾸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또 자꾸 한국영화가 상업화되면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문제다.

인니질문: 문화교류에 대한 생각. 교류로 인한 부정적 측면. 또는 한국인들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영화를 통해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어떤 종류의 교류가 필요한가?

한국답변: 적극적으로 서로의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 영화제나 교류전 등등도 필요할 것이다.

인니설명: 현재 <Whats' up with Love>는 1개 섬만 개봉한 상태다. 230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는데 이 수치는 수도인 자카르타 인구의 6배다. 제작비는 4billion RP 즉, 3백만 달러가 들었고 26개 프린트를 만들어서 44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수입은 24billion RP로 거의 제작비의 6배 정도다. 주인공이 유명가수이고 OST 역시 상당한 인기다. 마케팅 기법이 아직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처럼 주먹구구식의 작품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패키지에 가깝게 작품을 사고해서 흥행 요소들을 많이 고려한다. 그런 젊은 세대들의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만 약 200개 정도의 스크린이 있다. 5년 전에는 약 1,000개 였으나 지금은 200개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섬에는 약 150개 정도가 있다. 입장권은 US\$3.5 정도다. 문제는 세금이다. 입장권의 1/3은 극장이 가져가고, 1/3은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1/3이 제작자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의 몫을 줄이지 않는한 영화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Jakarta Art Institute 방문

• 일시: 2002년 6월 24일 오후 6시-오후 7시

• 영화상영

<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

• 내용

학교설명: 인도네시아 유일의 영화학교. 과거에는 국립이었으나 지금은 정부 보조가 전체 예산의 15% 이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된다. 영화와 텔레비전학과에는 500여 명이 재학중이고, 예술학교 전체는 약 3000명의 학생이 있다. 500명은 학부와 원생을 합쳐서다. 코스는 3년 반 코스와, 5년 코스가 있다. 모두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장학금제도는 Kodak에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도다. 최근 한 단편영화제에 무려 700여편의 영화가 몰려서 젊은층의 영화에 대한 열기를 알 수 있다. 학비는 1학년이 US\$1,000정도고, 2학년은 US\$300 정도다. 이 정도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비싼 학비다. 고교 졸업후 바로 입학할 수 없고 현장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입학 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대개 영화계나 방송쪽이다.

별첨 2. 조별세부보고서

프로그램별 논의내용 정리 : B조

· 정리 : 박종호 (동국대학교 영화제작학과 교수)

<필리핀>

■ Movie Workers Welfare Foundation Inc. 방문

- 일시 : 2002년 6월 19일 15:00-17:00
- 참가자 : Mr. Nick Deocampo(Director, MowelFund), Mr. Espiridion Laxa(Chairman, Film Academy of the Philippines), Mr. Eddie Romero(Chairperson, NCCA Cinema Programme)

· 내용 :

큐존시티의 주택가에 위치한 모웰펀드는 아세안 인디영화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영화관련 민간기관이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MFI(모웰펀드 필름 인스티튜트)는 필리핀 독립영화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웰펀드는 필리핀 영화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은 물론 자체 건물을 확보하여 실험적인 영화제작과 교육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교육시설 수준이 한국의 영상교육시설에 비하여는 낙후되어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열정과 실험의식은 물질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기에 충분함을 느낄 수 있었다. Mr. Nick Deocampo(Director)와 그들의 젊은 영화 스태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우리의 한국영화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 교류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크게는 아시아의 문화적 네트워크 구성과 작게는 소프트웨어교류 및 물질적 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유희 분야의 장비를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연대에 있어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협의사항 :

- Mr. Dick Deocampo는 필리핀에서의 한국영화제 개최를 제안. 개최관련 행정 및 장소지원 등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함.
- MowelFund의 사무국장인 Deocampo를 비롯한 원로영화인들은 영상자료의 교환과 상호간의 회고전을 강력히 요청해 옴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Nick Deocampo (Director) 등과 만나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2003년 4월)를 소개, 필리핀 여성 감독 특별전의 가능성을 타진. 향후 협력과 정보 교류 확인.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의 아시아 단편 경선에의 출품 권유. (남인영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한-필리핀의 영화교류의 확장을 위해 필리핀 영화기술자 2-3인을 서울종합촬영소에 초청. 훈련기회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

■ 영화감상 및 영화인 토론회

- 일시/장소 : 2002년 6월 21일 14:00-16:00 / 필리핀문화센터
- 참가자 : Dr. Bienvenido Lumbera (Chairman, Film Development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Mr. Lilian C. Barco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Ms. Victoria D. Belarmino (Film Archivist)

• 내용 :

필리핀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마르코스 시절인 1980년대에 만들어진 이스마엘 버날의 영화 <Manila by Night>을 관람하였다.

이전에 모웰펀드에서 보았던 단편 영화와 마찬가지로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마닐라의 밤거리를 배경으로 가족, 마약과 동성애 등의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다룬 이 영화를 통해 서구적 요소의 유입과 억압된 사회에서의 문제의식과 저항의식이 검열의 틀 안에서도 작가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형상화된 영화였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필리핀 영화의 어제와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의 참석자들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검열을 포함한)에 대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다.

• 협의사항 :

- 이 나라는 연간 100편의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영상자료원이 없기 때문에 제작자가 각자 자기의 사무실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어 중요한 영상문화 재산이 모두 소실 또는 파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련법규 제정과 자료원의 설치요령에 대한 일체의 참고자료를 보내주는 동시에 필리핀 영상자료원 설립을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함.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필리핀의 영화제작시설과 영화 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울종합촬영소의 규모와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위한 종합촬영소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 제시.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
- Lena Strait Pareja 교수(필리핀 대학교 영화 및 시청각 커뮤니케이션과)와 만남. 필리핀 여성 감독들에 대한 글을 전달해 받음. 앞으로 필리핀 여성 감독 특별전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예정. ASEAN 실무진들로부터 필리핀 여성 감독들의 작품들을 소개 받았으며, 이들 작품들의 선정 작업에서 ASEAN Office와 협력하기로 함. (남인영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주 필리핀 대사(손상하)만찬

- 일시 : 2002년 6월 21일 19:00-20:30 / Mandarin 호텔

• 내용 :

필리핀에서 한국영화의 소개 및 영화를 통한 상호교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필리핀 문화센터의 공간활용과 민간기구인 MowelFun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영화제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의사항 :**

- 영상자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최근의 영화 중 영어자막이 있는 영화 중 필리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영화들을 영진위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음.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
- 한국대사관의 손상하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필리핀 외교부 측의 요청은 마닐라 국제영화제에 한국영화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영화 축제를 단독으로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현대영화와 더불어 오래된 영화의 회고전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싱가포르>

■ 영화감상 및 관련인 토론

- **일시/장소 :** 2002년 6월 23일 오전 10시-12시 / Swissotel
- **참가자 :** Mr Jack Neo(Director-Writer), Mr Daniel Yun(Producer), Mr. Franklin Wong(CEO, MediaCorp Studio)

• **내용 :**

2002년 싱가포르 최고 흥행작품인 'I Not Stupid'를 관람하고 감독, 프로듀서, 제작자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자국영화사상 2번째 흥행기록인 3.8싱가포르 달러의 흥행수익을 기록한 영화이고, 감독은 자국영화의 흥행 1,2위 기록을 모두 갖고 있는 텔레비전 코메디언 배우출신의 시나리오 작가인 잭 네오이다. 영화의 자본은 방송 그룹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출자를 하고, 미디어콤플렉스 영화제작사인 레인트리에서 제작된 싱가포르적 제작특징의 전형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자국 영화시장의 한계(도시국가가 갖는 제한된 인구 규모)로 인해 대부분 저예산 영화가 싱가포르의 주류를 이룬다. 이 영화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창작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 **협의사항 :**

한국에서의 배급 가능성 및 배급 전략에 대해 조언함.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작품을 추천하기로 약속함.(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성사는 어렵게 되었고 담당프로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함.) (박종호 동국대학교 교수)

■ Ngee Ann Polytechnic 방문

- **일시 :** 2002년 6월 24일 10:00-12:00
- **참가자 :** Dr. Victor Valbuena(Director), Ms. Mitchell Gnutzman(Dy Director), Mr Vijay Chandran (Lecturer)

• **내용:**

싱가포르 최초의 영화 전문교육 기관으로 3년 과정의 전문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정부의 투자를 받아 전체적으로 뛰어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임 교수가 30명에 이를 정도로 좋은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영어권이라는 장점을 살려 전세계에서 온 교수를 전임과 초빙으로 나누어 유연하게 고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단일 건물에 모든 시설을 집중하고 학년과 작업 공정별로 장비와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잘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상관련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최첨단 장비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의 영상교육 현실에서 부러운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점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출발은 우리보다 늦었지만 계획적인 투자와 기반시설들은 이들이 갖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한국의 어느 대학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세계 및 아시아 영화학교 연합에 가입할 필요성도 갖게 되었다. 이 대학의 시설은 매우 훌륭했으나 소프트웨어의 결핍이 눈에 띄었고, 한국과 협조하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 **협의사항 :**

- 학과장으로부터 제작 장비 및 시설 리스트, 설계도 등을 추후 전달받기로 확인. 현재 재직 중에 있는 홍익대학교 조형대학에 전달할 예정. 홍익대학교와 Ngee Ann Polytechnic간의 학술 및 학생 교류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 방안을 개발하여 양교에 건의할 계획임. (남인영 여성영화계 프로그래머, 홍익대학교 강사)

■ **MediaCorp(방송영화제작사) 및 스튜디오 방문**

• **일시 :** 2002년 6월 24일 14:00-15:30

• **참가자 :** Mr. Franklin Wong, CEO, MediaCorp Studios, Mr Kenneth Tan, CEO, MediaCorp Radio & SFC Member, Mr Daniel Yun, CEO, Raintree Pictures

• **내용 :**

국영기업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변모된 미디어 콤플렉스는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이다. 방송이 주된 분야였던 과거에서 운영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익구조 형성을 위해 영화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레인트리 프러덕션 역시도 이들 계열사이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모든 제작 인프라들이 영화현장에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방송과 같이 제한된 시간과 예산에서 작업하던 경험이 영화에도 적용이 되어, 저예산 영화들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 **주 싱가포르 대사(함명철) 만찬**

• **일시/장소 :** 2002년 6월 24일 19:30-21:00 / 관저

• **내용 :**

싱가포르 영화가 한국에서 소개될 수 있는 방법과 한-싱가포르 합작 영화에 대한 현실적 대화가 오갔다.

• **협의사항 :**

- 함명철 대사는 8월에 개최되는 싱가포르 Korea Festival에 ‘서편제’를 비롯한 3-4편의 영화를 보내주고 특히 영화배우 전지현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옴.
- 이 나라는 일시적인 이벤트도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일년에 일주일 정도씩 “한국영화회고전”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지 영화인들의 생각. 이 점은 한국영상자료원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싱가포르에서 한국영화제가 열릴 경우 영진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

■ **Singapore Film Commission 방문 및 토론**

• **일시 :** 2002년 6월 25일 11:00-12:30

• **참가자 :** Dr. Ismail Sudderuddin(Director, SFC), Ms. Ang Hwee Sim(Assistant-Director, SFC), Ms. Jun Mahtar(Assistant, SFC), Mr Vijay Chandran(Lecturer, NgeeAnn)

• **내용 :**

SFC는 우리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영화정책 수립 및 집행기구이지 일반적인 개념인 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아니다. 비록 싱가포르 영화산업의 규모나 그 체계가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을 배경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많은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SFC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제작지원, 독립영화 육성 방안, 촬영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한-싱가포르의 합작이나 향후 연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SFC가 시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업 중에 이미 우리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험과 현재 한국 영화제작 현황, 배급, 흥행에 관한 설명과 자료를 공유하였다. 이후 싱가포르 국립 자료보관소를 방문하고 우리와 같은 영상자료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하였다.

SFC는 한국과의 합작영화 활성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국산영화 점유율(Market share)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연간 5-6편의 국산영화를 제작하면서도 900편의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싱가포르로서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부러움을 가지며 한국의 영화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 **협의내용 :**

- 국립자료원은 있으나 특별히 단독으로 영상만을 취급하는 자료원은 없음. 이 나라 역시 관계 공무원과 싱가포르 필름 커미션 및 Media Corp 의 대표들과 회의하는 도중 영상자료원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토로한바 있음. 싱가포르 역시 자료원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한국으로부터 많은 Know-how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 (정홍택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싱가포르 여성감독 및 작품 리스트 요청. 추후 전달하기로함. 여성영화제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감독에 대해 싱가포르 영상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확인. (남인영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싱가포르와 한국간에 원활한 공동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음. 영진위가 보유한 스튜디오의 활용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올해 부산영화제(11월중) 방문 중 서울종합촬영소 방문을 공식요청함. (이덕행 서울종합촬영소 소장)